



현대자동차그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2022에서 부스를 통해 PnD 기반으로 개발된 L7을 시연했다.

BTS 노래 맞춰 춤추는 4족 보행 로봇 ‘스팟’... 경사·계단 자유자재 ‘모베드’

(4족 보행 로봇)

(소형 모빌리티)

현대자동차 부스

컨퍼런스 소개 기술 직접 체험
퍼스널·서비스 모빌리티 소개
“모베드 등 2년 내 상용화 추진”

BTS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4족 보행 로봇 스팟보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장난감같은 모빌리티가 관람객 눈을 사로잡은 이유는 단순함이었다. 어떤 사물이



PnD 모듈 인휠 모터. 바람을 넣지 않아도 되는 타이어나 장착됐다.

든 올려놓기만 하면 메타버스를 넘나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유 자재로 구성할 수 있다.

현대차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 부스를 공개하고 전시를 시작했다.

현대차 부스는 전날 컨퍼런스를 통해 소개한 로보틱스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정이선 회장이 데리고 나온 스팟과 아틀라스와 함께, 메타모빌리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오브 싱스(MoT), DnL과 PnD 모듈 및 응용 솔루션까지 준비했다.

현대차는 스팟의 군무로 전시를 시작한 직후, 모베드를 직접 무대로 이동시켰다. 납작한 철판에 바퀴 4개가 달린 단순한 형태, 얼핏 보면 장난감이나 짐을 끄는 웨건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모베드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4면에 바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작동했기 때문. 각 휠마다 따로 작동해 빙글빙글 도는 것은 물론, 바

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마치 춤을 추는 것같이 현란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인휠 모터가 핵심 기술이다. 다리가 없이 각각 움직이는 바퀴만 장착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 다양한 움직임뿐 아니라 계단이나 험한 지형을 넘나드는 것도 가능하다. 작동시간도 완충시 4시간에 달한다. 다리를 없애 자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한 덕분이라는게 현대차 설명이다.

모베드 기반인 DnL이 전천후인 것과는 달리, PnD 모듈은 조금 더 간단하고 현실적인 폼팩터였다. 모베드와 같이 움직임이 자유롭지는 않은 대신, 간단한 구조로 위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날 부스에는 사람 한명이 탈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서비스 모빌리티가 소개됐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사람이 탑승해 조이스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에도 진입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사람이 아닌 짐을 실을 수 있는 로지스틱스 버전, 그리고 바퀴 대신 리프트를 장착한 엘리베이터 모델도 소개했다.

PnD 모듈 성능을 극대화한 콘셉트 L7도 나왔다. 일반 도로에서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이같은 로보틱스 모듈과 스팟 등 로봇을 모두 오픈 플랫폼으로 개발 중이다. SDK를 이용해 각각 필요에 따

라 간단한 코딩만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기아차 매장에 도입한 로봇 역시 이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

모베드 등 상용화 시기는 2년으로 잡고 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아웃도어 딜리버리와 오피스봇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 기자
metroseoul.co.kr



모베드는 4면에 바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며 경사나 계단 같은 지형 변화에도 원활한 이동이 가능했다. /김재용 기자

정기선 “완전자율항해 가능한 지능선박 만들 것... 새로운 ‘퓨처 빌더’로”

(현대중공업지주 대표)

현대중공업 프레스 컨퍼런스

정기선 대표, 취임 후 첫 글로벌 무대
아비커스 자율운항 등 3대 사업 소개

“현대중공업그룹은 인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퓨처 빌더(Future Builder·미래 건설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대표가 취임 후 첫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서 컨벤션센터에 부스를 마련하고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계가 성장하는데 토대를 구축해 온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난 50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가올 50년은 세계 최고의 퓨처 빌더가 되어 더 지속가능하고 더 똑똑하며 더 포용적인,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류가 급진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 현대중공업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아비커스의 자율운항기술과 액화수소 운반 및 추진 시스템 기술, 지능형 로보틱스 및 솔루션 기술이 3대 핵심 사업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2’ 현장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대표가 그룹의 미래비전인 ‘퓨처 빌더(Future Builder)’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발표를 맡은 아비커스 주효경 엔지니어는 자율운항기술이 해상사고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해상 물류와 해양자원 개발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1분기까지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 대양횡단 항해를 마칠 예정. 안전 자율항해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선박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미래기술연구원은 해양수소 밸류체인을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양수소 사업의 가능성을 높여줄 핵심기술로 그린수소 생산기술과 액화수소 운반선을 제시했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이 2025년까지 100MW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

축, 세계 최초의 2만입방미터급 수소운반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빅데이터 기반 장비관리 솔루션 전문 개발사인 클루인사이트의 마이클 류 전략총괄이사는 지능형 로보틱스 기술로 구현되는 미래 건설 현장을 선보였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건설현장의 무인화를 목표로 스마트건설 로봇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2025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 현대로보틱스도 산업용로봇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해 줄 F&B, 방역 등 다양한 서비스로봇을 출시할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 기자

“아비커스 자율운항 기술, 세계 최고수준”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 인터뷰
“차별화된 기술 중요성 절감”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는 첫 글로벌 발표를 끝낸 직후 인터뷰 장소에 들어서면서 다소 지친 기색임에도 자신있는 표정만은 잃지 않았다. 다양한 질문 속에서도 당당하게 소견을 밝히며 기대감을 높였다.

정 대표는 새해 인사를 건내며 현대중공업그룹이 왜 미래를 이야기하게 됐는지를 소개했다. 창립 50주년, 최근 조선 사업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별화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다는 것. 창립 50주년을 맞아 쉽빌더가 아닌 퓨처빌더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CES에 처음 참가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조선 시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이미 올해를 시작해 1주만에 2조원 가까이 수주한 상황, 지난해 대규모 수주로 상당한 미래까지 일감을 채웠다는 설명이다.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기술 수준은 최고 수준으로 봤다. 이미 아비커스가 포항에서 자율운항에 성공한 만큼 세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밸류체인은 경제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유체 관련 기술로 대규모 해상 풍력과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 수소 운반선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수소 시대가 본격화하는 시점은 2030년 경으로 내다봤다.

건설기계 부문에서도 청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장비가 자율주행을 실현해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자동화돼야 하지만, 우선 당장 가능한 내용에 한해 상용화를 하며 사업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로보틱스 분야도 주요한 미래 사업으로 봤다. 서비스로봇과 서빙로봇을 포함해 숙박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업화를 논의중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 기자